

2025

Vol. 131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7·8 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 HARMONY** — 한센가족과 HARMONY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HOPE —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HAPPINESS —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비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미션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사업목표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사업소개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한센인
복지사업

한센인
인권증진 사업

기획·홍보
사업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총연합회 공식 SNS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 초심을 다지며, 더 나은 미래로

04 스페셜 리포트

- 제22대 이길용 회장 취임 및 감사예배

08 한센 리포트

-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
- 제22회 국제 나학회(ILC 2025)
- 2025년 결핵·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 한센인 2세 피해 보상에 대한 한센특별법 추진 가속화
- 중간성과평가회
- 구라봉사회 의치 보급 사업
- 한센 현안 사항 협의
- 故 육영수 여사 51주기 추모식
- 2025 정착마을 보건요원교육
- 2025년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 대중매체 모니터링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한센탐방

34 지부는 지금

- 경기지부
- 서울·중부지부
- 울산·경남지부

40 한국IDEA협회

42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한센공감

44 함께하는 한센

- 러시아 바이칼 여행_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 치매예방은 관계에서 시작된다_신이경 대표(중앙치매예방협회)

한센이모저모

50 한센병 바로알기

- 한센병, 궁금해요!
-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54 정보알리미

- 아침이 든든해야 하루가 든든
- 요즘이책

60 독자들의 공간

- 치매 예방 학습자료
- 한센게시판
-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제23권 제4호 통권 제131호 발행일 2025년 7·8월호 발행인 이길용 편집인 우홍선 발행처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디자인앰퍼샌드 격월간 비매품
※ 「한센」은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초심을 다지며, 더 나은 미래로



사랑하는 한센 회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폭우와 폭염 속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안부를 살피며, 시원한 바람처럼 작은 여유와 평안이 여러분의 일상에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총연합회는 회원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먼저, 제22대 회장 취임식을 통해 총연합회는 다시금 초심을 다졌습니다. 설립 이래 전국 한센인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걸 어온 길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한센 가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정착마을의 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보건요원 교육을 진행하여 83명이 수료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요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이 한센병과 한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한 이번 조사는 향후 법안 제정과 정책 수립, 교육과 홍보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를 통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 전달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센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위로지원금’ 증액을 위한 협의입니다. 정부 부처 및 국회와의 꾸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반드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센 회원 여러분!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우리는 쉼 없이 서로의 삶을 지키고, 함께할 수 있는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는 늘 여러분이 계십니다.

저는 리더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먼저 존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센 가족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삶과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 총연합회의 길이자 저의 사명입니다. 부족함은 겸허히 인정하며, 남은 임기 동안 변화와 쇄신으로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인권과 복지를 지키는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센인 2세 피해 보상을 위한 한센 특별법 개정, 위로지원금 증액, 정착마을 소유권 문제 해결, 2세 복지 확대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함께 이뤄낸 성과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듯, 앞으로의 길도 반드시 함께 열어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존엄하게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사회 안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섬김과 연합으로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를 높여 나가는 새로운 시작 제22대 이길용 회장 취임 및 감사예배



7월 1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총연합회 제22대 이길용 회장 취임식 및 감사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총연합회 고문, 이사, 지부장 등 주요 임원들과 정착마을 대표, 소록도 원생자치회, 안동성좌원 등 전국 한센인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이길용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연대의 뜻을 다졌다.

>>> 감사예배: 섬김과 나눔의 정신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와 정문기 목사의 대표 기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축가 순서에서는 총연합회와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직원들이 ‘행복’이라는 복음 성가를 불러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라오.”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길용 회장이 한센인을 위해 헌신하며 실천해 온 섬김과 나눔의 삶을 되새기며,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를 더했다. 이어 방주교회 김두형 목사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나눴다.



▲ 사회 김병찬 아나운서



▲ 기도 정문기 목사



▲ 특송 직원일동



▲ 말씀 김두형 목사



▲ 축하공연 이지우 해금연주자

>>> 취임식: 한센인의 존엄과 자부심을 위해

예배 후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이지우 해금 연주자의 축하 공연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이길용 회장은 취임사에서 총연합회의 설립 취지를 되새기며 미래 비전을 밝혔다.

“한국한센총연합회의 설립 이래 전국 한센인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한센 가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 마음 그대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축하와 연대의 자리

취임사에 이어 김춘진 前 국회의원과 조영선 변호사가 현장에서 축사를 전하며 이길용 회장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했다. 또한, 김문수 前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국회의원의 영상 축하 메시지가 이어져 총연합회의 미래와 이길용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센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헌신할 총연합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취임행사



▲ 취임사 이길용 회장



▲축사 김춘진 前 국회의원



▲축사 조영선 변호사



▲축하영상 김문수 前 고용노동부 장관



▲축하영상 안철수 국회의원



▲케익절단 및 건배제의



▲ 기념촬영

한센인의 삶을 기록하다, '한센인 구술 기록화' 본격 추진

총연합회는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한센인의 생애사를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는 중대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한센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격리와 차별 속에 살아온 이들의 삶을 구술로 채록하고, 이를 책으로 제작해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연합회는 '한센인 개인의 생애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닌, 그 시대를 살아낸 민중의 역사'인 한센인의 미시적 생활사를 집대성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해 왔던 한센병 관련 국가적·역사적 기록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는 한센인의 삶을 단절된 과거가 아닌 현재와 연결되는 살아 있는 역사로 복원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은 전국의 한센인 정착마을과 생활시설, 재가 한센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심층 면담으로 생애사를 채록한다. 특히, 한센병의 발병과 치료, 정착 생활, 노동과 생계, 공동체 생활, 차별과 편견, 피해 사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역사로 남긴다.

총연합회는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책자를 제작해 총 100부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한센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사회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한센인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구술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이 사업의 핵심이자, 한센인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다. 한 어르신은 한센병으로 인해 소록도에 들어가게 된 과정, 거주지 이동과 가족관계,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대부분의 구술에 참여한 한센인 어르신들은 신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를 기록하는 일에 깊은 의미를 두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구술 과정에서는 마음을 울리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한 어르신은 한센병 발병 사실을 가족에게 숨긴 채 살아온 이야기를 전했다. 발등에 생긴 부종과 상처, 조기 발견 후 치료받은 과정 등을 회상하며, 자녀에게 병을 알리지 않기 위해 평생 조심스럽게 살아온 삶을 고백했다. 이에 따라 총연합회는 구술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외딴 정착마을에서의 삶을 들려주었다.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자녀들이 10리 길을 걸어 학교에 다녔던 기억,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누에를 치고 소를 키웠던 경험 등을 나누며, 정착

마을에서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온 한센인의 생활력과 가족애, 그리고 삶의 지혜를 보여주었다.

한센인의 삶을 기록하는 이 사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세상의 외곽에서 묵묵히 살아낸 이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한 권의 책으로, 그리고 공동의 기억으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길용 회장은 “이번 구술 기록화 사업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존엄과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가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센병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편견을 걷어내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깊이 있는 역사적 이해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총연합회는 고령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술 횟수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며 한센인들의 삶을 기록하는 구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결핵·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중간성과평가회

우리 총연합회는 7월 18일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2025년 결핵·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중간성과 평가회에 참석하였다. 동 평가회는 국가한센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결핵·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간보고서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가한센병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관(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복지협회, 가톨릭한센병연구소,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과 대한결핵협회가 참여하였다.

총연합회는 2025년 한센인 인권회복과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을 토대로 상반기에 진행된 사업실적과 하반기 진행 예정 사업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발표 후 효율적인 한센사업 수행에 대한 논의와 앞으로의 한센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총연합회는 질병관리청과 국가한센사업 수행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 증진 사업과 편견해소를 통한 인권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센 현안 사항 협의

총연합회는 지난 7월 9일, 안철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제22대 회장 취임식에 축하 영상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와 관련해 장소 대관 등의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행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같은 날 전현희 국회의원실도 방문해 한센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 실현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센인 민원 가운데 하나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구 생활지원금)’의 증액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철수 의원실과 전현희 의원실 모두 한센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한센인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위로지원금’ 증액을 꾸준히 요구하고, 모든 한센인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착마을 한센인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2025 정착마을 보건요원교육



총연합회는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보건요원을 대상으로 ‘보건요원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센인의 건강 도우미인 보건요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고령화된 한센인의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착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질병관리청의 ‘올바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과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노년의 건강관리’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응급 대응과 고령자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영상 자료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024년 총연합회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착마을 거주자의 95.5%가 66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 중 49.2%가 81세 이상이다.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으로는 고혈압(22.7%), 당뇨(17.6%), 관절 질환(15.5%), 소화기 질환(1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84.45%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중증 장애(1·3급)가 56.64%, 경증 장애(4·6급)가 27.81%를 차지한다. 이동 진료 서비스는 연간 561회 제공되었으나, 만족도는 84.4점으로 전년 대비 4.3%p 하락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의료 접근성 강화, 물리치료·치과·이비인후과 등 진료 과목 확대, 그리고 장애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한센인 중심의 보건요원교육과 의료·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언론계에 한센병(인) 관련 차별 용어 근절 촉구 대중매체 모니터링



총연합회는 대중매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부적절한 용어들이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언론 보도에 포함된 ‘나병’, ‘문둥병’ 등 낙인을 조장하는 표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차별적 용어 확인 시 해당 언론사에 신속한 정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한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는 물론,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총연합회가 2025년 실시한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센병’의 연상되는 이미지로 ‘문둥병’, ‘피부병’, ‘소록도’ 등을 떠올리는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0.3%가 한센병에 대한 정보를 ‘매스미디어(대중매체)’를 통해 접했다’라고 답했다. 이는 언론이 대중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결과로,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와 정확한 용어 사용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또한 동일 조사에서는 ‘한센병은 유전된다.(15.7%)’,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다.(16.5%)’, ‘의무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29.0%)’ 등 여전히 과거의 왜곡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센병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이지만, 전파력이 매우 약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발병하지 않으며 조기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하다.

총연합회는 “정확한 질병 용어 사용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한센인에 대한 존중과 인권의 문제”라며, “특히 언론과 미디어는 사회적 낙인을 재생산하는 표현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 인식 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매월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도, 한센인(병) 관련 부적절한 용어 사용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언론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여전히 한센인(병)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길용 회장은 “한센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한센인에 대한 정확하고 온전한 이해를 끌어내는 데 언론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총연합회는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차별 없는 사회 실현과 한센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대중매체 모니터링 현황

수정 일시	언론사명	기사 제목	수정 전 단어	수정 후 단어
6월	시사캐스트 외 13곳	농협중앙회 IT사랑봉사단, 가정의 달 맞아 복지시설에 쌀 기부	나병	한센병
	머니투데이	6년만에 재개...성라자로마을, 성남아트센터서 '그대있음에' 음악회		
	세계일보	성 라자로마을, 바다·김장훈·박완규 함께 하는 '제38회 자선음악회' 개최		
	이데일리	바다·박완규·김장훈이 함께하는 자선음악회 '그대있음에'		
	광주일보	광주 발달장애인 위해 평생 헌신 천노엘 신부 선종		
	더팩트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2주년과 하와이 이민의 삶과 죽음	나병환자·나병	한센인·한센병
	스포츠경향	바다·박완규·양지은·김장훈, 한센병 환우 위해 나선다... '그대 있음에' 출연		
	글로벌이코노믹	[정경대 박사의 인문학] 과신·교만·탐욕은 일신을 망친다	문둥병·문둥이 마을	한센병·한센인 정착마을
			※ 주석 추가: 책 본문 내용을 발췌한 기사이기에 주석 추가 요청	

수정 일시	언론사명	기사 제목	수정 전 단어	수정 후 단어
7월	국민일보	[바이블시론] 매력 발휘하는 대통령	나병	한센병
	군포시민신문	안재구 5주기 추모 및 밀양 항일역사 탐방 취재기		
	불교신문	‘울지마 톤즈’를 보고		
	뷰어스	[이한울의 알쓸약사(史)] 동국제약 마데카솔, 상처치료제 넘어 화장품까지		
	세계일보	농협중앙회 IT사랑봉사단, 가정의 달 맞아 복지시설에 쌀 2.5톤 기부		
	cpbc	[생활 속의 복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가교, 이웃		
	한겨레	인수공통감염병은 6500년 전 시작됐다		
	핸드메이커	지중해와 함께하는 일상을 빛으로 그려 내다, 호아킨 소로야		
	가톨릭신문	[창간 100주년 특별기획 - 교회와 함께 민족과 함께] (10) 한국에 주교 3명 동시 임명	나병 수용소	한센인 시설
		[사막 교부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사랑을 드러내라!	나병환자	*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현재는 ‘한센병’으로 부릅니다. ※ 주석추가
		[말씀묵상]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한국기독교공보	보여주는 사랑	나병환자	한센병 환자
	데일리굿뉴스	[이정기 칼럼] 그래도 기대하라	나병환자· 나병	한센병 환자·한센병
	동아일보	“평생 일로 갚아야할 빚쟁이라던 태석이 형 말 생생”	나환자· 나병	나환자 (한센병환자) ·나병(한센병)
			※ 주석 추가: 책 내용을 발췌한 부분 이기에 주석 추가	
	k스피릿	최악에 찌든 병든 육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문둥병· 나병	한센병
	BBS 뉴스	영화로 나툰 ‘그 사람 경허선사’...“모든 소리가 진리의 말씀”	문둥병	
	울산제일일보	[이상길의 드라마에세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3’ 결국 인간의 본성을 해부하다	문둥병	문둥병(한센병)
			※ 영화 대사를 발췌한 기사 내용이기에 주석 추가 요청	

올바른 용어 사용이 차별을 멈춥니다.

왜 용어가 중요한가?

‘나병’, ‘문둥병’은 낙인을 조장하는 표현입니다.

한센병은 전염력이 매우 낮고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잘못된 용어는 편견을 키우고, 올바른 용어는 인권을 지킵니다.

올바른 표현은?

× 사용 자제	○ 올바른 표현
문둥병 나병	한센병 (Hansen's Disease)
병자/환자	한센인 또는 한센병사업대상자

국제 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관리청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 WHO 권고: Hansen's Disease(한센병) 사용 권장
- 한국·일본·미국: 한센병(Hansen's Disease: HD)
- 중국: 마풍(麻風)
- 독일: 아우샛쯔(Ausschützig)
- 아랍국가: 조삼(ZOSSAM)
- 인도네시아: 페니키투구스타(Penikit-kusta)

**한센병(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현이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센병 없는 세상을 향하여 제22회 국제 나학회(ILC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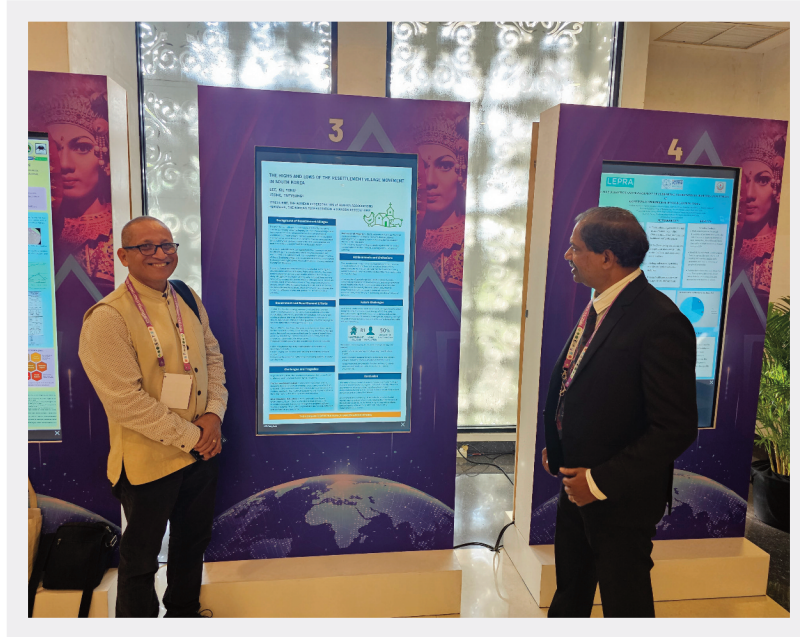


▲ 제22회 국제 나학회
(22nd International Leprosy Congress 2025) 개막식

총연합회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 22회 국제 나학회(22nd International Leprosy Congress 2025)’에 참가하여 한국의 한센인 정착마을 역사와 인권·복지 증진의 방향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이번 학회는 ‘한센병 없는 세상(Towards a World with Zero Leprosy)’을 주제로, 전 세계 한센병 전문가, 보건 관계자, 한센인 및 활동가 등 12개국에서 온 1,000여 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인 세계 최대 규모의 한센병 관련 국제행사로, 질병의 과학적 접근과 인권·사회적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총연합회는 국내 한센사업 관련 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의 한센인 정착사업의 명암(THE HIGHS AND LOWS OF THE RESETTLEMENT VILLAGE MOVEMENT IN KOREA)’이라는 제목으로 한 디지털 포스터를 전시하며 한센인의 삶 변화, 성공 사례와 과제를 소개했다.



▲총연합회 디지털 포스터 전시 화면을 살펴보는 국제 학술대회 참가자들

이는 디지털 전시 형식으로 학회 기간 내내 공개되어,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정착마을 역사와 한센인을 위한 인권·복지 증진의 방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분과별 세션에서는 한국IDEA협회가 ‘한센인과 한센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한 30년 활동의 영향과 성과(THE SOCIAL AND ECONOMIC INDEPENDENCE PROJECT : 3 DECADES OF IMPACT AND ACHIEVEMENTS)’를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 발표에서는 학교 설립, 장학금, 급식 지원, 직업 훈련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특히 자녀 교육과 지속적 후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학회에서는 한센병 진단 및 치료 기술의 최신 동향과 면역 반응, 항생제 내성 대응 등 과학적 주제와 더불어 인권, 낙인 해소, 공동체 참여 등 사회적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한센인들의 발표와 토론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며, 한센인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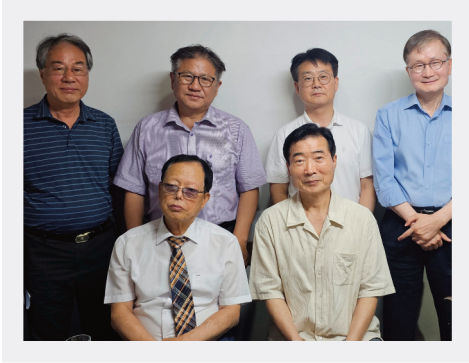
총연합회는 학회 기간 동안 디지털 포스터 전시, IDEA International과의 교류 행사,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한국 한센인의 경험을 알리고, 다양한 국가의 당사자 및 활동가들과 소통하며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한센인과 가족, 활동가들과의 교류는 한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제22회 국제 나학회(22nd International Leprosy Congress 2025) 폐막식

이번 ILC 2025 참가는 한국의 한센 사업과 정착마을 사례를 세계 무대에 소개하고, 국제적 연대의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한센인의 인권과 자립을 위한 국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을 넓혀갈 계획이다.

한센인 2세 피해 보상에 대한 한센특별법 추진 가속화



총연합회는 7월 21일 서울 서초구 모악정에서 한센인권변호단과 한센인 2세의 피해보상과 인권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을 비롯하여 한센인권변호단의 박영립, 조영선, 이영기, 서중희 변호사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회의에서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그동안 한센인권변호단과 함께 이룬 한센인 인권 증진의 성과들에 대하여 감사를 전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한센인 가족 피해 보상’과 앞으로 추진할 ‘한센인 2세 피해보상’을 위한 ‘한센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센인권변호단은 일본 변호인단과의 정기적인 회의 진행 상황과 한국, 일본, 대만 한센인권변호단 간의 교류 사항을 공유하며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 한센인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활동 사례를 예시로 언급하며 피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인권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전했다.

회의를 통해 한센인과 한센인 2세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논의했으며 한센인 2세가 겪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센인 2세에 대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한센인 2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한센인과 한센인 2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구라봉사회, 2025년 의치 보급 사업 칠곡마을서 진행



우리 총연합회는 2025년 한센인 의치 보급 사업을 한국구라봉사회(회장 한충일, 이하 구라봉사회)와 협력하여 칠곡마을(대표 홍완근)에서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한센인 어르신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의치(틀니) 제작 및 기존 의치 수리를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사전진료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본 진료는 7월 5일과 19일, 9월 2일에 진행된다. 이에 8월 9일과 15일에는 사후 점검을 통해 총 10여 명의 한센

인 어르신들에게 의치 제작 및 수리를 해드렸고, 그 외 어르신들에겐 다양한 치과 진료를 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진료에 참여한 한센인 어르신들은 이번 진료를 통해 건강한 의치를 보급받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불편했던 의치로 인해 음식을 잘 먹지 못하였는데, 새로운 의치로 이제는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다.”라며 “몇 달 동안 주말마다 먼 지역까지 찾아와서 신경 써주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라봉사회 한충일 회장은 “1969년 故 유동수 회장을 비롯한 치과의사와 학생 6명이 소록도에서 6년간 진료 봉사를 시작한 이후, 한센인 의치 보급 사업이 5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한센인 어르신들의 고령화로 의치를 사용하는 분들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총연합회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치아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故 육영수 여사 51주기 추모식



총연합회는 8월 1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故 육영수 여사의 51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길용 회장을 비롯한 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의 한센인들이 함께해, 생전 한센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고인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모식은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길용 회장은 “육영수 여사께서는 한센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넘어,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 분이였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작은 권리와 복지의 시작점에는 여사의 뜨거운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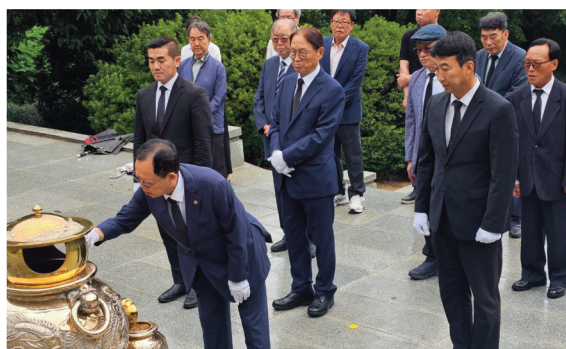
故 육영수 여사는 생전 국립소록도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한센인 정착마을을 자주 찾아 손을 맞잡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직접적인 위로와 용기를 전했다. 그 방문은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었다. 특히 정착마을에 씨돼지를 보급하고 전기와 전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한센인들의 치료와 자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센인들과 청와대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 일화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따뜻하게 남아 있다.

이길용 회장은 젊은 시절 경기 마석 성생 마을에서 직접 육 여사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분은 언제나 소박한 한복 차림으로 우리 곁에 와주셨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센인들의 평균 연령이 81세를 넘긴 현재, 고령화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故 육영수 여사의 자비와 헌신은 여전히 희망의 원천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편견과 낮은 복지 수준은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이기도 하다. 이길용 회장은 “법령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사회가 조금 더 우리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총연합회는故 육영수 여사의 서거 직후인 1974년부터 매년 추모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고인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 한센인 복지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추모식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자리를 넘어, 한센인들이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사회의 책임과 연대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우리 총연합회는 일반 국민의 한센인(병)에 대한 인식 실태를 담은 「2025년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일반 국민이 한센인과 한센병에 대해 어떤 인식을 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법안 제정, 효과적인 인식 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격년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6월 전국의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국민 2명 중 1명은 한센병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센병에 대한 기초 이해도를 묻는 문항에서 ‘한센병은 의무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병이다’라는 질문의 정답률은 41.2%, ‘한센병은 감염성이 없는 질환이다’라는 질문은 42%로, 대부분의 문항 정답률이 50% 이하 수준에 그쳤다. 이는 많은 국민이 여전히 과거의 낙인과 편견 속에서 한센병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낮은 정답률의 배경에는 정보 접근의 격차가 있었다. 한센병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거나 ‘모른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주요 이유로는 ‘교육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37.2%)’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잘못된 정보나 사회적 편견 때문(34.8%)’이 뒤를 이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인식의 원인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2030세대는 ‘정보 부족’을, 5060세대는 ‘사회적 편견’을 주된 이유로 꼽아, 세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에게는 한센병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과 콘텐츠가 필요하며, 중장년층에게는 현재의 의학적·사회적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는 인식개선 활동이 요구된다.

이번 보고서는 조사 개요, 요약 및 시사점, 조사 결과, 5개년 비교로 총 4개의 장과 부록(설문지)으로 구성되었으며, 한센인(병)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 수준, 차별 해소를 위한 고려 사항, 정보 접근과 홍보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부록에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한 ‘5개년 인식 변화’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도가 높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국민 절반이 한센병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라며 “한센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 전체의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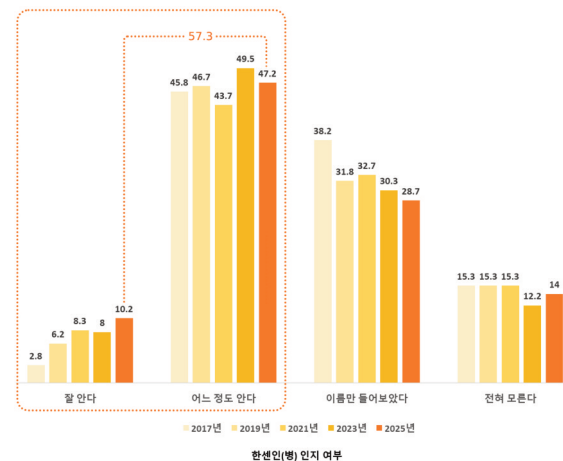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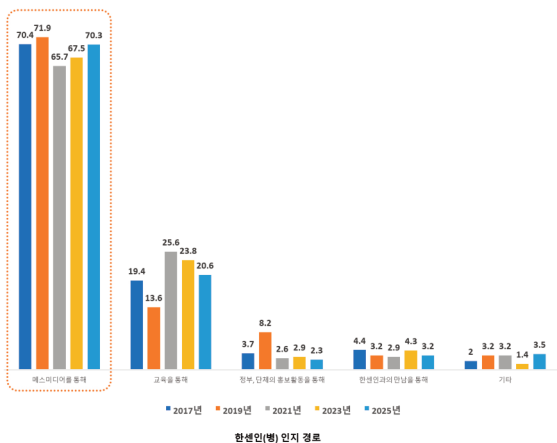
우리 총연합회는 이번 보고서를 향후 한센인(병)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한센 사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17~2025년 한센인(병) 인식조사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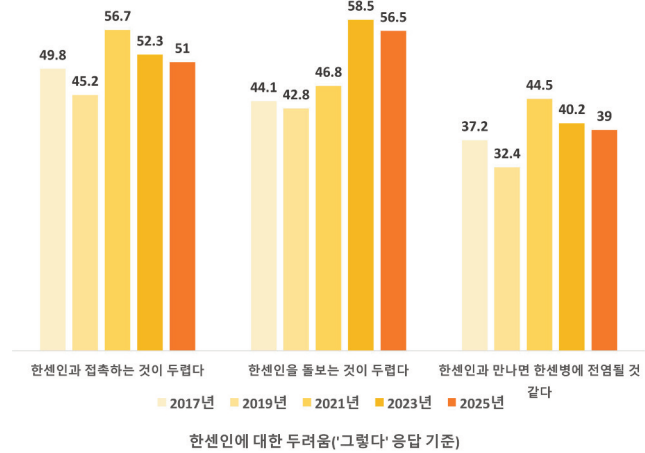
한센인(병)에 대한 기본 인식

- 한센병 또는 한센인에 대해 ‘안다(잘 안다+어느 정도 안다)’ 응답은 2023년 57.5%, 2025년 57.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이 중 ‘잘 안다’ 응답은 2023년 대비 2025년 2.2%p 증가하였고, 반면 ‘어느 정도 안다’는 2.3%p 감소해, 전반적인 인지도는 유지되었으나 깊이 있는 인식이 다소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 한센병 또는 한센인을 알게 된 경로는 5개년 모두 ‘매스미디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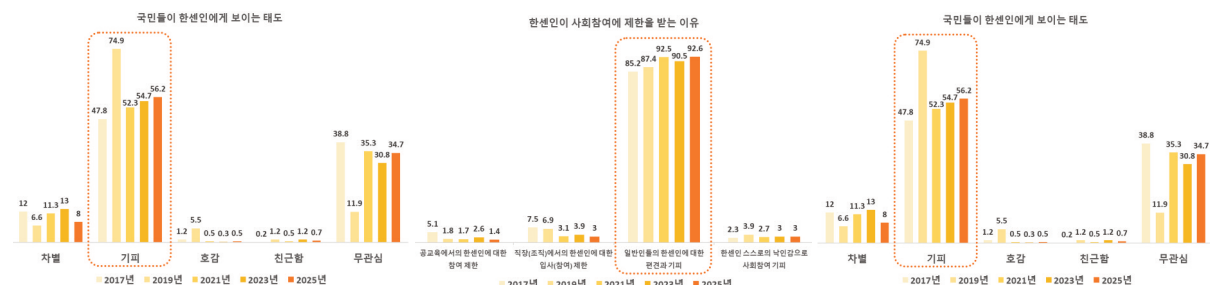
>>>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적 인식

- 한센인에 대한 두려움 인식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한센인과 접촉하는 것이 두렵다’, ‘한센인을 만나면 병이 전염될 것 같다’ 항목에서 2021년 이후 ‘그렇다’ 응답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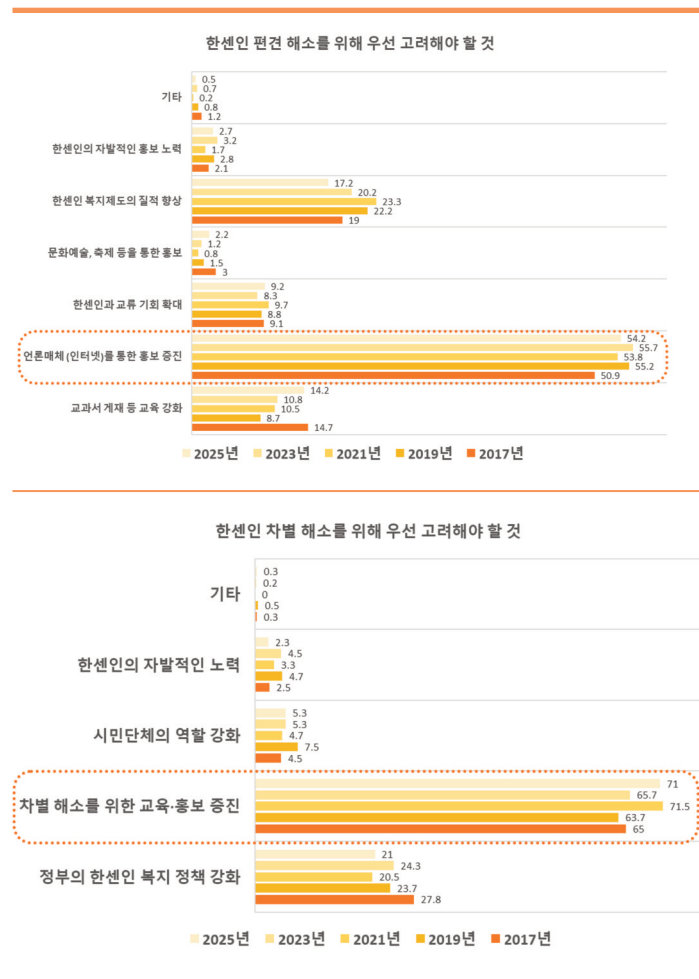
>>> 한센인 사회참여 및 차별 인식

- ‘한센인이 사회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인식은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그 주된 이유는 5개년 모두 ‘일반인의 편견과 기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21년 이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국민이 한센인에게 보이는 태도 역시 5년 연속 ‘기피’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편견의 지속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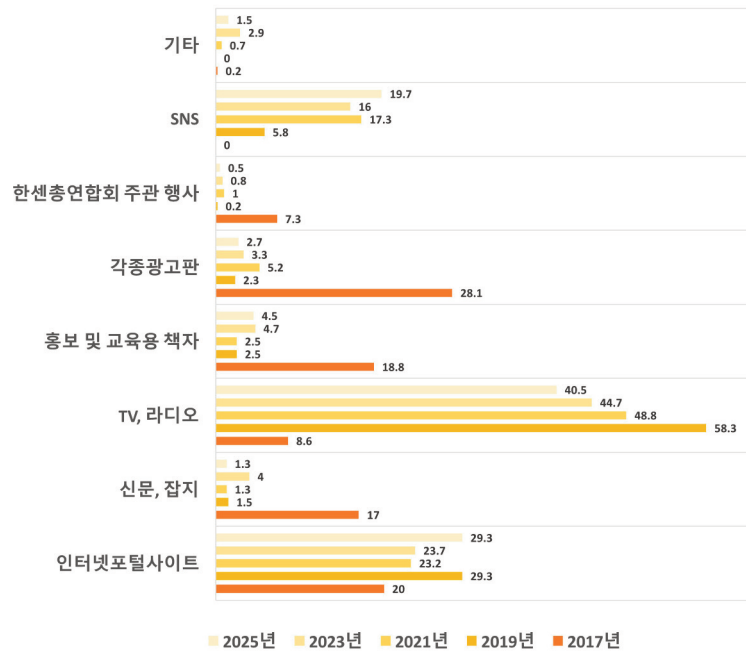


>>>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우선 고려 사항

- 한센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5개년 모두 ‘언론매체(인터넷 포함)를 통한 홍보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차별 해소를 위한 고려 사항으로는 ‘교육·홍보 증진’이 모든 연도에서 1순위로 제시되어, 지속적인 공공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한센인(병) 인식개선을 위한 정보 및 소식 전달 매체로는 ‘TV, 라디오’가 5개년 모두 1순위로 나타났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반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한 정보 습득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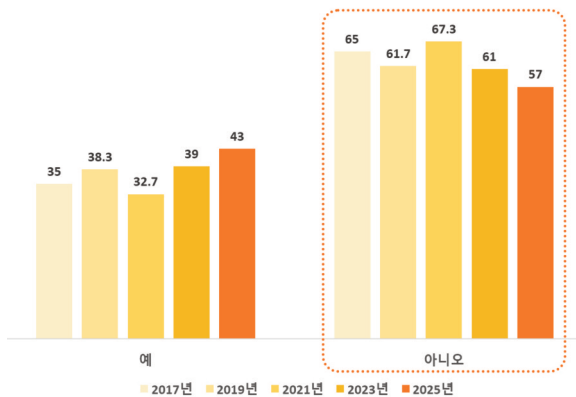
한센인(병) 인식개선을 위한 정보 및 소식 전달 매체(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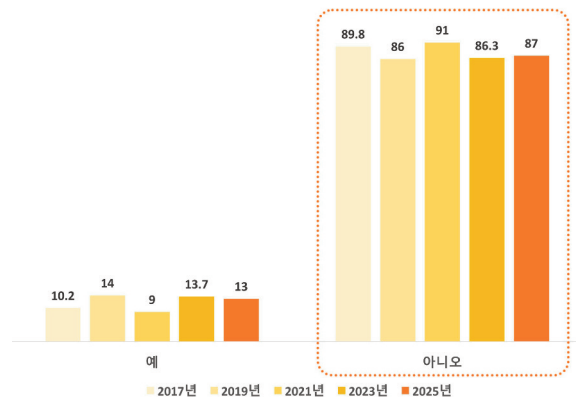
>>> 한센인 피해사건 및 특별법 관련 인식

-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인지도는 2021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한센특별법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인지도는 여전히 15% 미만으로, 법적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센인피해사건 인지 여부



한센특별법과 그에 따른 피해자 지원제도 인지 여부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보상 청구의 내용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9. 11. 21.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청구자)는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
- 대상자는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 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2025. 8. 14. 기준 157명(1차 62명, 2차 63명, 3차 14명, 4차 1명, 5차 3명, 6차 5명, 7차 9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123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 심의 중임
-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문의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전화 1566-2339 / 팩스 : 1566-2032

로젠요양병원, 정착마을에 따뜻한 후원



경기 동두천에 있는 로젠요양병원 이서경 원장이 7월 9일, 총연합회 산하 경기 지부(지부장 최광현)를 통해 연천 다온 마을과 포천 장자마을에 지정기부금을 후원하였다.

이서경 원장은 바쁜 일정으로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최근 유튜브를 통해 한센인 정착마을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 직접 후원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으로 마련된 참외는 7월 16일, 경기지부 최광현 지부장을 비롯해 다온 마을 김정남 대표, 장자마을 최종국 대표, 로젠요양병원 서유석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각 마을에 전달되었다.



전달식에 함께한 서유석 본부장은 “앞으로 정착마을 어르신들께서 건강이나 생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 병원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광현 지부장과 김정남 대표, 최종국 대표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관심을 두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이서경 원장님과 로젠요양병원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경기지부는 앞으로도 민간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정착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중부지부, 한여름의 따뜻한 나눔



총연합회 산하 서울·중부지부(지부장 박우택)는 지난 7월 10일, 국제로타리 3740지구 청주한별로타리클럽(회장 이선희)으로부터 청원마을(대표 장경선) 한센인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물품 나눔 봉사로 쌀을 전달받았다.

이번 나눔은 청주한별로타리클럽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하나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청주한별로타리클럽은 충북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청원마을 장경선 대표는 “청주한별로타리클럽의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물품 전달이 한센인 주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울산·경남지부, 경로행사 물품 전달 및 식사 초청 나눔 진행



총연합회 산하 울산·경남지부(지부장 이상용)는 울산·경남 지역 한센인 정착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행사를 준비하며 따뜻한 정성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돼지고기와 빵을 마련하여 지역 내 여러 정착마을에 전달했으며, 어르신들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오랜 시간 정착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지역 사회의 연대와 관심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울산·경남지부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음식을 대접하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상용 지부장은 “정착마을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외로움과 편견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살아오신 만큼, 더 자주 찾아뵙고 따뜻한 손길을 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경로 행사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나눔으로, 한센인 정착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성혜마을 어르신들의 특별한 하루



울산북구노인복지관은 7월 15일, 울산 지역 유일의 한센인 정착마을인 북구 성혜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바다와 예술이 함께하는 부산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는 한센인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부산 송도 해상 케이블카를 타며 시원한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미디어 아트 전시로 유명한 아르떼뮤지엄을 찾아 눈과 마음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의 외출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고, 동행한 복지관 관계자들도 함께 따뜻한 추억을 나누었다.

이번 나들이는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감동을 마주하는 시간으로, 성혜마을 어르신들에게 큰 활력과 위로를 선사했다.

산청 경호마을 및 생활시설 산사태 피해... 극한 호우에 삶의 터전 무너져



▲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호마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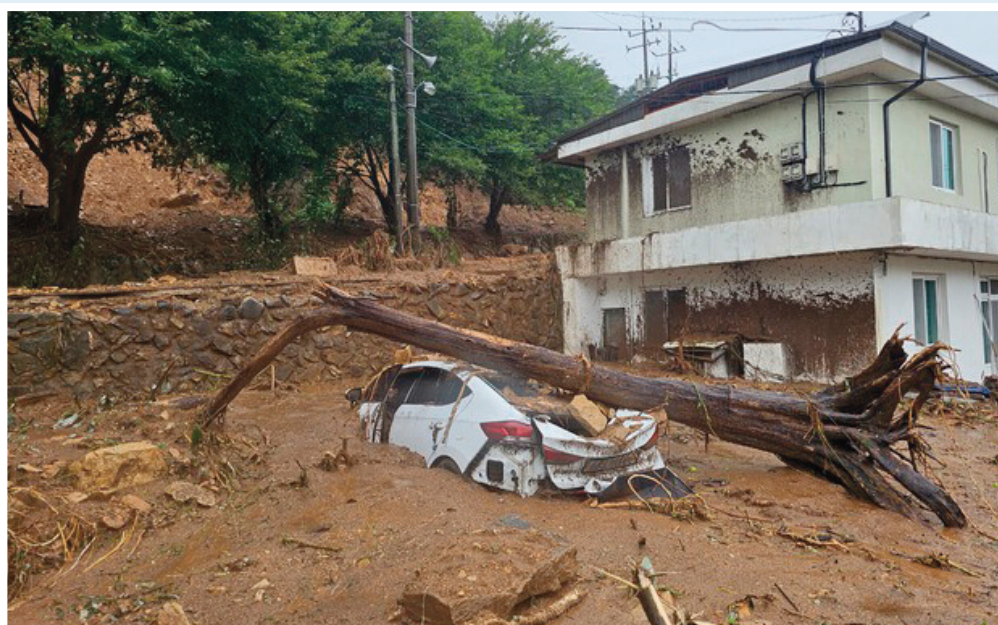
올해 여름 여러 차례 발생한 ‘극한 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이 물바다로 변한 가운데, 총연합회 산하 울산·경남지부(지부장 이상용)에 속한 산청 경호마을(대표 이상구) 역시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이번 폭우는 올봄 대형 산불로 이미 피해를 겪은 산청군 지역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남겼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산청군 일대는 산사태, 주택 침수, 도로 유실 등 심각한 재난 상황에 직면했고, 경호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을 곳곳에서는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면서 한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끊기는 고립 상황이 이어졌다.

한센인 생활시설인 산청성심원 역시 계곡 범람으로 인한 침수로 성모상 일부와 인근 도로가 파손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으며, 중증장애인 자립 체험 홈, 한센인 어르신들의 주거 공간, 직원·봉사자 숙소와 임시 거주지 등이 초토화되어, 농장과 주택, 도로까지 파손·침수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산청성심원 내 토사와 빗물로 차량이 파묻히고 나무가 쓰러질 만큼 초토화돼 있다.

이런 가운데 소록도 원생자치회는 울산·경남지부 소속 한센인 정착마을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며 위로와 희망의 뜻을 전했다. 이상용 지부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도움을 주신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산청 경호마을과 산청성심원 등 피해 지역은 현재도 복구가 진행 중이며,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센인 정착마을과 생활시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더디지만 곳곳하게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한국IDEA협회, 30년간의 사회·경제적 자립 성과 발표 제22회 국제 나학회(ILC) 참석 및 연제발표



한국IDEA협회(회장 정상권)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국제 나학회(22nd International Leprosy conference)’ 본회의에 참석했다.

‘한센병 없는 세상을 향하여(Towards a World with Zero Leprosy)’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회는 ▲전염 제로(Zero Transmission) ▲장애 제로(Zero Disability) ▲차별 제로(Zero Discrimination)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의료 전문가, 연구자, 정책 관련자, 한센병 관련 단체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1박 2일 간의 사전 회의에 이어, 2박 3일간 본회의가 이어지며 학술 및 정책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정상권 회장은 7일 개회식 후 진행된 개별 발표에 초록이 채택되어 “한센병 환자를 위한 사회·경제적 자립 사업: 30년간의 영향과 성과”를 주제로 연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한국IDEA협회가 오랜 시간 진행해 온 자립 지원사업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한센인의 지속 가능한 삶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경험을 나누었다.

또한 정상권 대표회장은 학회 기간 중 진행된 IDEA 이사회 만찬 회의 및 회의 미팅에도 참석해 “먼 거리에서 참석한 IDEA 구성원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라며 “전 세계 1,600만 명의 한센인 인권 회복과 차별 철폐를 위해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학회는 9일 오후 4시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했으며, 차기 국제나학회는 2028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어르신 위한 힐링 프로그램 활발히 운영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압화 책갈피 만들기 활동과 노인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에게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어르신들과 함께한 압화 책갈피 만들기



센터는 어르신들과 함께 ‘압화 책갈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추억과 감성을 담은 시간을 마련했다. 어릴 적 낙엽을 말려 책갈피로 만들던 기억을 떠올리며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빈 원목 책갈피에 접착제를 바르고 꽃 누름(압화)을 활용해 개성 넘치는 나만의 책갈피를 완성하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압화는 단순한 만들기 체험을 넘어 정서 함양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꽃을 만지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손 근육 자극 효과도 있어 원예치료의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형형색색의 꽃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활동이 끝난 후에는 각자의 책갈피를 자랑하며 정서적 만족감도 높였다.

노인 건강 체조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노인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의자에 앉아 손과 발, 상체를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저강도 운동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귀찮다.”라며 주저하던 어르신들도 화면 속 친절한 강사의 안내와 익숙한 음악에 맞춰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서로의 동작을 칭찬하고 웃음꽃을 피우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동작을 통해 근력 향상과 관절 유연성 증진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 유대감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송정하 센터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바이칼 여행 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나는 지인의 초대로 “우리 나이 팔십”에 인생의 마지막이라 마음먹고, 용기를 내어 바이칼 배낭여행에 동참하게 되었다.

▶ 6월 29일 - 김해공항에서 첫 출발

육칠십 대 꽃할배 열 명이 새벽 일찍 김해공항에 집결했다. 오후 9시 30분, 항공편은 이륙했고, 비행시간은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됐다.

▶ 6월 30일 -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 울란우데까지

새벽에 몽골 울란바토르 근처 공항에 도착해 1시간가량 이동, 찜질방에서 서너 시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이동하여 버스 주차장에서 컵라면과 빵으로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해결했다.

오전 7시 20분, 러시아 울란우데행 국제버스에 올라 장장 12시간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평화로움에 감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함과 피로가 몰려왔다. 몽골과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는 데만 약 두 시간을 소요했다.

처음 밟는 러시아 땅. 조금은 긴장되었고, 주변 환경은 낯설고 다른 분위기였다. 쉬지 않고 달려 오후 8시경 울란우데에 도착해 숙소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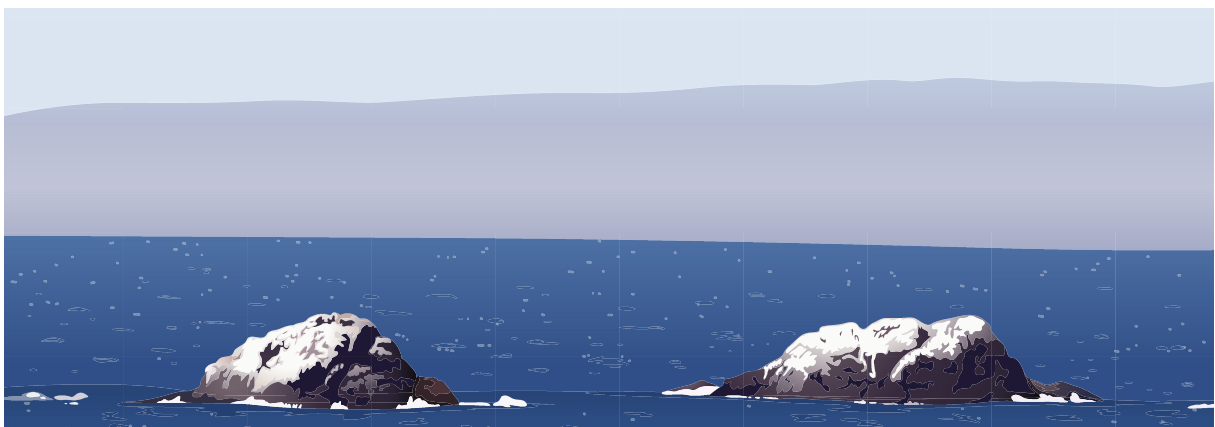
▶ 7월 1일 - 러시아 횡단 열차 탑승, 이르쿠츠크로

다음 날 아침, 이르쿠츠크행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했다. 그러나 몽골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불법 자가용 영업이 성행하여 외국인이 합법 택시를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결국 바가지요금을 감수하고 자가용에 올랐지만,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받아 중간에 하차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열차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난감한 처지에 불안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다행히 자가용 3대와 타협이 되어 역으로 갈 수 있었고, 출발 2분 전 열차에 무사히 탑승했다.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처음 타보는 러시아 횡단 열차. 4인 1실 침대칸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약 8시간을 달려 이르쿠츠크에 도착했고, 이번에는 여유 있게 숙소에 들 수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통해 바이칼호수에 대한 설명을 공유했다. 바이칼호수는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에 있으며, 약 2천5백만~3천만 년 전에 형성된 호수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담수호이다. 길이 636km, 폭은 20~80km에 이르며, 면적은 31,722km², 최대 깊이는 1,637m에 달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민물호수로, 300개가 넘는 강이 바이칼호수로 흘러드는데 밖으로 나가는 수로는 안가라강 하나뿐이라 한다.



▶ 7월 2일 - 바이칼호수 투어

이른 아침, 작은 승합차를 타고 안가라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바이칼호수 하구에 도착했다.

눈앞에 펼쳐진 바이칼은 호수라기보단 바다 같았다. 상상을 초월한 대자연의 위용에 말문이 막혔다. 호기심에 물가로 다가가 손을 적셔보니 수정처럼 맑은 물이 매우 차가웠다. 이 물이 여행의 열기와 피로를 한순간에 씻어주는 느낌이었다.

TV나 다큐멘터리로만 보던 바이칼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음에 꿈만 같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이번 여행을 총괄 기획한 정순출 장로님, 리더이자 가이드로 수고하신 박충렬 선교사님, 그리고 동행한 일행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칼 투어를 마친 후 곧장 이르쿠츠크역을 향해 근처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오후 8시 30분에 출발하는 침대 열차에 다시 몸을 실었다. 약 8시간 동안 잠을 깊이 자며 휴식을 얻었다.

▶ 7월 3일 - 다시 몽골로

이른 새벽, 울란우데 역에 도착했다. 시간이 빠듯해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몽골행 국제버스를 타러 이동했다. 오전 9시 30분, 또다시 12시간의 버스 여행이 시작되었다.

다섯 시간쯤 달렸을까, 국경 근처 초소에서 검문에 걸렸다. 우리 일행과 튀르키예 한 명의 여권이 회수되고, 하차를 요구받았다. 이유도 설명받지 못한 채 1시간 가까이 정차 상태였다.

그때 몽골 여성 한 분이 강단 있게 항의했다. 그 덕인지 시간이 지난 후 출발 허가를 받았다. 러시아 국경을 넘어 몽골 땅에 다시 들어섰을 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근처 식당에서 양고기 식사를 하고 또다시 버스를 탔다. 지겨운 여정. 멀리서 뿌연 모래 바람이 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렇게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숙소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 7월 4일 - 몽골 문화 체험

몽골 투어를 진행했다. 드넓은 초원을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몽골의 영웅 칭기즈칸 동상. 이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말도 타보고, 초원의 말뚝과 소똥도 밟아보는 이색 체험을 했다. 식당가에서는 또 한 번의 양고기 식사를 하며, 모처럼 느긋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 7월 5일 - 귀국

숙소에서 나와 공항으로 이동. 오전 11시(한국 시각 12시)에 이륙한 비행기는 오후 3시 30분경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 여행을 마치며

특수 작전을 방불케 했던 이번 바이칼 배낭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내년에 꼭 다시 한번 함께하자”라며 손에 손을 잡고 아쉬운 이별을 나누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목표가 있는 삶’이 노년의 삶에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는지를 이번 여행을 통해 뱃속 깊이 실감했다.

무엇보다 ‘더불어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다. 꽃할배를 춤추게 하는 이 여정 속에서, 저물어가는 인생길 위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치매예방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삼청마을에서의 15주



신이경 대표(중앙치매예방협회)



“선생님, 살다 보니 경로당에서 파크골프까지 치게 될 줄 몰랐어요.” 마지막 수업 날, 정*용 어르신께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신 한마디가 15주간 교육 여정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말이었다.

삼청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한 치매예방교육은 단순한 운동이나 인지활동이 아니라, 웃음과 땀과 정이 있는 삶의 기록이자 작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매주 정성껏 이름을 불러드리며 라포를 형성했고, 색깔을 읽고, 숫자를 더하며 머리를 쓰는 동시에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색깔 인지가 어렵다며 머뭇거리시던 이*기 어르신께서 5색 칠판을 익숙하게 읽으시고, 김*순 어르신은 뇌력 향상도가 105.04%가 향상되는 기록이 나타났다.

손바닥 박수, 손힘 볼 운동, 5색 4다리 게임, 구강운동, 댄싱퀸 선발대회까지, 매 수업마다 어르신들은 놀랍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서로 응원하며 배려하고, 박수를 아끼지 않으셨다.

수업 말미에는 “옆에 있는 짝꿍이 있어 든든하다.”, “손뼉을 치며 웃다 보니 머리가 맑아졌다.”라는 말씀들이 오갔고, 어떤 날은 모든 어르신이 빠짐없이 출석하신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이 운동을 집에서도 꼭 해보겠다.”라며 의지를 다지시기도 했다.

무엇보다 뇌력기록표를 통해 스스로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시고, “내가 해냈다.”라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보여주실 때, 이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기억을 잃지 않고, 삶을 즐기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역할이자 보람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예방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관계와 경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다.

마지막 수업 날, “다음에는 또 언제 교육받을 수 있나요?” 하시던 아쉬움 가득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길을 성실히, 따뜻하게 걸어가고자 한다.

그리고 사랑 많은 삼청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감사합니다.”



한센병 바로 알기

한센병이란?

- 나균에 의한 만성감염병이지만 나균에 대한 면역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에만 발생되고,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한센병 증상

-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피부가 퇴색되거나 붉은색 등으로 침착된 반점이 나타납니다.
- 가렵지는 않지만 따듯하거나 차갑거나 아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나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피부 병소가 생기기 전에 신체의 주요 신경을 잠식하여 신경통 증상으로 임파선이 붓고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증상이 오래될 경우 손가락, 발가락 등에 힘이 없고 구부러지기도 하며 눈썹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센병 치료시 주의사항

- 처방약물은 규칙적이고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 약물투약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 피부염, 피부착색,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
- 기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하고 진료 받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한센병 관리를 위한 권고처방은 다양합니다. 담당 선생님과 의논 후 투약처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권고처방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한센병 치료로 최상의 치료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Q&A

Q1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Q2

부정군(不定群)나는 무엇을 말하나요?

- 한센병의 한 개 또는 소수의 명확하지 않는 병변이 나타나며, 피부반점이 얼굴, 사지, 엉덩이 등에 발생하며 감각소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부정군나의 증세는 향후 결핵양형나 또는 나종형나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Q3

한센병의 나반응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센병의 면역학적 변화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반응은 새로운 감염 없이 급성염증이 때로 심하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됩니다.

Q4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센병은 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등의 약물을 병용하여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 조기에 나균이 사멸 되어 한센병이 완치됩니다.

자료출처 : 2025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놓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1 요양·돌봄 서비스 지원

- ☑ 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 ☑ 제공내용: 일상생활 지원 및 요양(돌봄)서비스
- ☑ 제공기관

기관명	지역	입소 담당
성라자로마을	경기 의왕시	031-452-5655
여수애양평안요양소	전남 여주시	061-682-9595
안동성좌원	경북 안동시	054-852-1448
산청성심원	경남 산청군	055-973-6966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충북 오창읍	043-241-1300

- ☑ 입소비 발생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일부 시설의 경우 입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2 생계비 지원

- ☑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생활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제외
- ☑ 제공내용: 매달 약19만원(2025년 기준) 지원(본인통장)
- ☑ 제공기관: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3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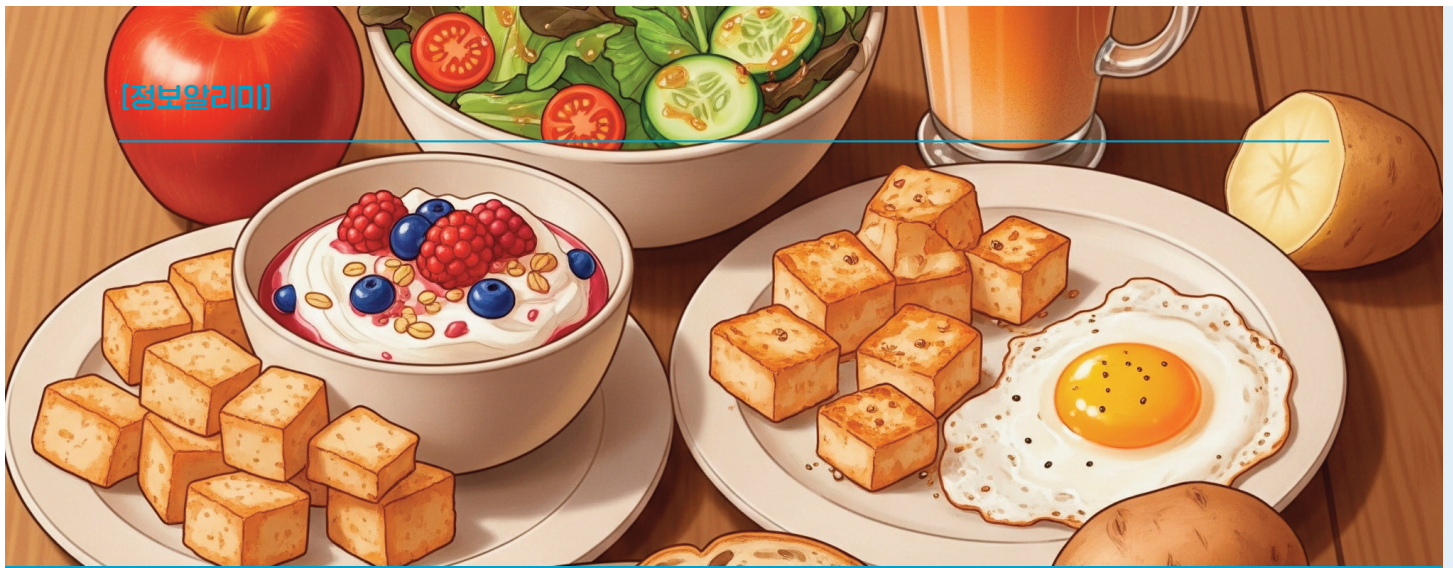
- ☑ 대상자: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제공내용 및 제공기관
 - 연구원: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등 지원
 - 연구원·지부: 의수족, 보조기, 족지, 특수화 등 맞춤형 제작 지원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진료받는 복지협회 문의

4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 한센인 복지 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장수사진),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 ☑ 기획·홍보 사업: 한센인 구술 기록화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5 피해보상 청구

- ☑ 대상자: 일제 강점기하 가족(2세,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피해자
- ☑ 제공내용: 피해보상 청구 관련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페이지 참조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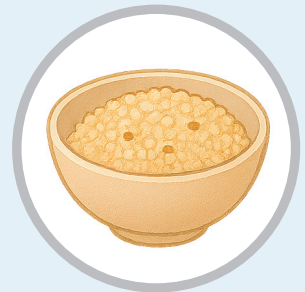


아침이 든든해야 하루가 든든! 최고의 아침 식사 메뉴 10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한 끼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 포만감, 신진대사, 심지어 외모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양과 포만감, 간편함을 모두 잡은 최고의 아침 식사 메뉴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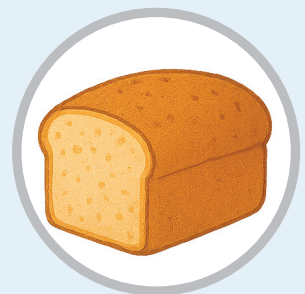
■ 아침 '밥파'는 현미콩밥!

- 현미: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
- 콩: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 단백질과 영양의 균형
- 현미콩밥은 씹는 즐거움과 함께 과식 예방에도 효과적
- 현미밥이나 콩밥만으로도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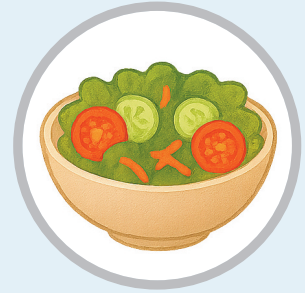
■ 아침 '빵파'는 통밀빵!

- 통밀: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사용해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
-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에너지가 오래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
- 씹는 식감이 좋고, 땅콩버터 등 건강한 토핑과 곁들이면 영양과 맛이 더욱 상승
- 통밀빵 단독 또는 다양한 재료와 함께 즐기기에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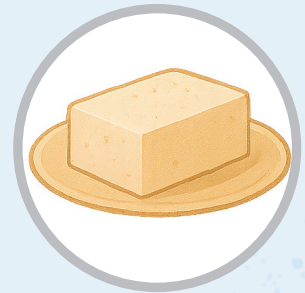
■ 아침 '채소파'는 샐러드!

-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달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재료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
- 소화가 잘되고, 부족한 수분과 영양을 한 번에 보충
- 가볍고 산뜻하게 시작하고 싶을 때 추천
- 드레싱은 가볍게, 재료는 다양하게 조합 가능
- * 드레싱 추천: 소금+후추+올리브오일+레몬즙 또는 발사믹 식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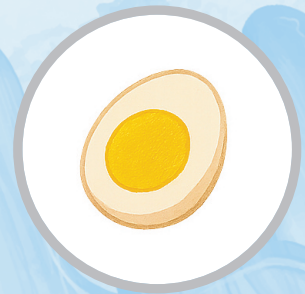
■ 아침 '단백질파'는 두부!

- 식물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 아침에 부담이 없음
- 칼슘, 철분, 이소플라본 등 무기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와 면역력, 뼈 건강에 도움
- 부드러운 식감으로 누구나 쉽게 섭취 가능
- 구이나 찜, 샐러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
- 현미콩밥과 함께 먹는 반찬으로도 좋음



■ 아침 '간편파'는 삶은 달걀!

-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신진대사 촉진과 근육 유지에 탁월
-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어 바쁜 아침에 제격
- 포만감이 오래가고, 간식 대용으로도 활용 가능
- 다른 재료와 곁들여 샐러드, 샌드위치로도 응용 가능
- 달걀은 달걀말이, 달걀프라이 등으로 만들어 반찬으로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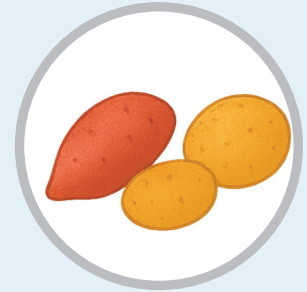
■ 아침 '과일파'는 사과와 바나나!

- 사과: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
- 바나나: 에너지원으로 훌륭하며, 칼륨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도움
- 간편하게 들고 다니며 먹을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적합
- * 바나나는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위가 예민한 경우 공복 섭취 주의



■ '구황작물파'는 고구마와 감자!

- 감자: 소화가 잘되고,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 아침 식사로 적합
- 고구마: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포만감과 영양 모두 챙길 수 있음
- 찜, 구이 등 간단한 조리로 준비 가능
 - * 위가 약한 경우 고구마 공복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음



■ 아침 '유산균파'는 그릭요거트!

- 고단백·저탄수화물 식품으로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
- 장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 소화가 잘되고 부담이 적음
- 견과류, 과일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과 영양이 배가
- 디저트처럼 즐기기에 좋고, 드레싱 대용으로도 좋음



■ 아침 '라떼파'는 단호박라떼!

- 단호박:식이섬유와 비타민A가 풍부해 포만감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
- 우유와 함께 라떼로 즐기면 부드럽고 속이 편안
-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맛으로 아침 대용으로 적합
- 간단히 믹서로 만들 수 있어 준비가 쉬움
 - * 단호박라떼 만들기



- 1) 단호박은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한 뒤, 껍질째 혹은 껍질을 벗겨 찜기에 10~15분 찜줍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시 랍을 씌워 7~8분 돌려도 됩니다.
- 2) 찜 단호박 150~200g, 따뜻한 우유 200~300ml, 꿀 또는 아가베시럽 1큰술, 소금 한두 꼬집을 믹서기에 넣습니다.
- 3) 모든 재료를 곱게 갈아줍니다. 단호박이 달지 않으면 꿀이나 시럽을 조금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아침 '죽파'는 닭가슴살 오곡죽!

- 오곡죽: 다양한 곡물의 영양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됨
- 닭가슴살: 단백질 보충까지 완벽하게 챙길 수 있음
- 가볍지만, 든든한 한 끼로 적합
- 아침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고 싶을 때 추천



■ 아침에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

- 정제된 탄수화물: 흰 빵, 과자, 시리얼 등
 -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과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음
-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
 - 나트륨, 방부제, 포화지방이 많아 심장 건강에 해롭고, 아침 공복 소화 불량 유발
- 단 음료: 단 커피, 과일주스, 가공 요거트
 - 당분이 높은 음료와 가공 요거트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에너지 저하와 피로감을 유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더 궁금하다면?

국가건강정보포털 [알림정보>건강교육자료실>자료실 검색>'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검색]



✓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 **적정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꾸준히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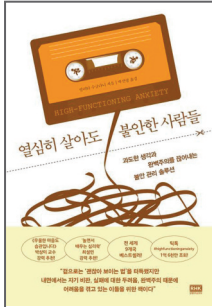
✓ **뇌졸중, 심근경색의 응급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부릅니다.



*뇌졸중 초기증상: 한쪽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심근경색 초기증상: 갑작스러운 가슴통증, 식은땀·구토·현기증, 호흡곤란, 통증 확산

요즘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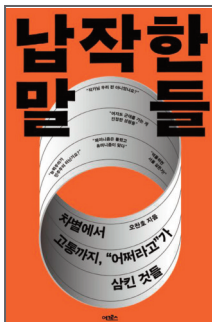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사람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불안할까?”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불안 관리 솔루션

HFA는 겉으로는 성과도 좋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자기비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민감성 등으로 지속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상태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내가 봐도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며 자멸적인 태도를 보인다. 남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고, 항상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강박을 가진다. 그러나 외부에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본인도, 주변 사람도 그 불안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책의 저자 칼리타 수글라니 박사는 본인의 경험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HFA 극복 가이드를 정리했다.



납작한 말들

“생각과 언어의 간편함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납작하게 찌그러트려버리는 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고민한 책”

베스트셀러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이후 우리 사회의 민낯을 용감하게 응시해 왔던 사회학자 오찬호가 ‘모욕’과 ‘사이다’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망가진 소통을 파헤친다. 신작 《납작한 말들》에서 오찬호는 복잡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납작하고 게으른 언어에 의해 망가지는지, 능력주의와 생존주의가 어떻게 일상의 언어를 타고 흐르며 차별과 폭력을 공고히 하는지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다는 단호함에 익숙해졌다. 빈부격차에 대해 지적하면 “북한에 가라”라는 빈정거림이 돌아오고, 비정규직의 고충을 이야기하면 “그런 일 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조롱이 돌아온다. 생각과 언어의 간편함이 타인의 삶을 납작하게 찌그러트리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책은 ‘사이다, 참교육, 굶餓냐?’ 같은 게으른 언어에 지친 이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논쟁을 상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할 것이다.



Quiz

한국한센총연합회와
똑똑한 두뇌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해요!

동물의 그림을 보고 아래에 동물 이름을 적어보세요.



왼쪽 그림 속에서 같은 동물을 찾아 마리 수를 적고,
계산도 함께 해보세요.

예시



$$\boxed{1} + \text{hippo} \boxed{2} = \boxed{3}$$

문제



$$\boxed{} + \text{monkey} \boxed{} = \boxed{}$$



$$\boxed{} + \text{elephant} \boxed{} = \boxed{}$$



$$\boxed{} + \text{hippo} \boxed{} = \boxed{}$$



$$\boxed{} + \text{bird} \boxed{} = \box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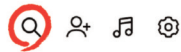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친구



한센사랑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 한국한센총연합회

채널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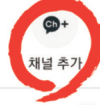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친구 81 명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한
단체임



채팅하기



채널 추가

소식

정보

상담원 채팅

월,화,수,목,금 09:00~18:00

기관/단체 > 복지

<http://www.hansenkorea.org/>

02-1566-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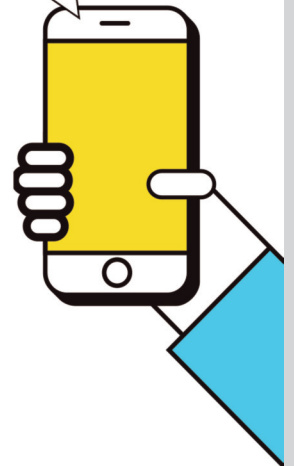
hansen@hansenkorea.org

연락처시대에도

당신의 **온기**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센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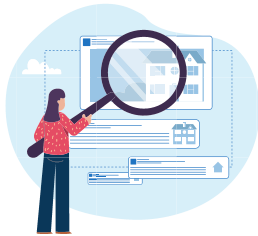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학술·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 「한센」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29-0900	(032)522-08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41 (간석동)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802-1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센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센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하나하나의 나눔이 모여
더큰 베품과 사랑이 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늘 여러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